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개조론과 4대강 살리기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 90년 전인 1919년 상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국을 개조하여 문명한 한국을 만들자고 주창하면서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이제 우리나라에 저 문명스럽지 못한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한 행복이 되겠소.....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듯하시리라......”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수많은 강으로 이루어진 3해다강(3海多江)의 워터프론트 국가다. 그러나 우리의 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연중 막대한 홍수피해, 물부족 및 수질문제 등
 - 4대강에 5水 기능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 5水 기능이란 이수(利水) · 치수(治水) · 풍수(豐水) · 청수(淸水) · 친수(親水)를 의미
 -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여 4대강 살리기 : 예를 들면, 강을 따라 청정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강변 건강 · 문화 · 생태여건 조성
- 4대강 살리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공조가 필요

※ 본 국토정책Brief에 인용된 문구는 “주요한 편저, 1979. 안도산전서, 샘터사, pp.544~549”에서 발췌하였음

1.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개조론

-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19년 상해에서 행한 연설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국을 개조하여 문명한 한국을 만들자고 주창하면서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
- 도산 선생은 한국의 모든 것을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대한을 개조하기를 시작하여야 하겠소. 1년이나 2년 후에 차차로 시작할 일이 못되고 이제부터 곧 시작해야 할 것이요. 만일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요.”

- 도산 선생은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 일은 국민의 행복과 연결된 것이라 했다.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들을 개조하고 있을까?』 하시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이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아시오?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소. 이제 우리나라에 저 문명스럽지 못한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한 행복이 되겠소.”

- 도산 선생은 강산개조가 산업과 과학 등의 발달과 관계있음을 역설했다.

“그 목재로 집을 지으며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하여 온갖 수리에 관한 일을 하므로 이를 좇아서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사업이 크게 발달됩니다. 이 물자 방면뿐 아니라 다시 과학 방면과 정신 방면에도 큰 관계가 있소.”

- 도산 선생은 강산개조를 아니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 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듯하시리라.”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1919년 상해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강산(江山)개조를 주창함. 연설 개요 중 일부를 소개하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개조의 사업을 잘하셨소. 그런 고로 그때에는 문명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소마는 근대의 우리 조상들과 현대의 우리들은 개조사업을 아니하였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어니와 이제부터 우리는 이 대환을 개조하기를 시작하여야 하겠소. 1년이나 2년 후에 차차로 시작할 일이 못 되고 이제부터 곧 시작하여야 할 것이요. 만일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 년의 유한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만일 너도 한국을 사랑하고 나도 한국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와 나와 우리가 다 합하여 한국을 개조합시다. 즉 이 한국을 개조하여 문명한 한국을 만듭시다…… 우리 한국을 문명한 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개조의 사업에 노력하여야 하겠소. 무엇을 개조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 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들을 개조하고 있을까?』 하시리라. 마는 그렇지 않소. 이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아시오?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소. 이제 우리나라에 저 문명스럽지 못한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한 행복이 되겠소. 그 목재로 집을 지으며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하여 온갖 수리에 관한 일을 하므로 이를 좇아서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사업이 크게 발달됩니다. 이 물자 방면뿐 아니라 다시 과학 방면과 정신 방면에도 큰 관계가 있소……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 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그런즉 이 산과 강을 개조하고 아니함에 얼마나 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듯하시리라. 비단 이 강과 산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다 이런 큰 관계가 있는 것이요. 그런 고로 모든 것을 다 개조하자 하였소…….”

※ 상기내용은 1919년(월일미상) 상해에서 행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개요 중에서 발췌함
(출처 : 주요한 편저(1979), “안도산전서”. 샘터사. pp.544~549)

2. 4대강 살리기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수많은 강으로 이루어진 3해다강(3海多江)의 워터프런트 국가다. 그러나 우리의 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연중 막대한 홍수피해, 물부족 및 수질문제 등
- 4대강에 5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4대강을 살려나갈 수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강을 강답게 살려나갈 수 있는 바, 강의 5수 기능 확보가 중요하다.
 - 5수 기능이란 이수(利水) · 치수(治水) · 풍수(豐水) · 청수(淸水) · 친수(親水)를 의미한다.
 - ① 이수(利水) : 강물을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적절히 이용함
 - ② 치수(治水) : 홍수를 예방함
 - ③ 풍수(豐水) : 강물이 풍족하도록 함
 - ④ 청수(淸水) : 강에 맑은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함
 - ⑤ 친수(親水) : 강과 사람이 친화할 수 있는 건강, 문화 기반을 마련함
-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여 4대강을 살려나갈 수 있다.
 - 예를 들면, 강을 따라 청정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강을 따라 자전거길 · 산책로 · 역사문화루트 등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강변 건강 · 문화 · 생태여건을 만들어 강호(江湖)의 즐거움을 위한 기반도 만들 수 있다.
 - 한국적 강변경관(Riverscape)을 고려함이 중요하다.

3. 국민적大功조를 통한 실천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강을 강답게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경제위기 극복과도 연계되므로 범정부부처 · 범지자체 · 범지역적 다각적大功조를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주요한 편저, 1979, 안도산전서, 샘터사, pp.544~549

김의원, 1982, 한국 국토개발사 연구, 대학도서, pp.710~714